

제522회 KMA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조찬회

2017.1.20(금) 06:40~09:00 | 하얏트호텔 그랜드 볼룸

1st Speech 07:20 ~ 08:10

대한제국의 역사에서 리더의 길을 묻다



이 태 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서울대학교 사학 학사 - 한국사 석사
■ 前)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 前)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 황조근정훈장 수상(2011년)

강연
소개

한국 근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운의 마지막 황제, 고종.

그러나 최근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권 침탈기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임에 집중한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 석학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는 일제와 서구 열강들의 이권 쟁탈속에서도 진행된 국가적 차원의 자력근대화 성과들과 사실에 기반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 시대 리더들이 걸어가야 할 정도(正道)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유년(丁酉年)의 시작, 패망하는 조선의 마지막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작으로서의 대한제국을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과 위기극복의 해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2st Speech 08:10 ~ 09:00

미중패권 충돌과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



박 인 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미국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 前) 한미교류협회 연구위원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 처장

강연
소개

헤성같이 떠오른 화제의 인물, 미국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신드롬'으로 표현되는 미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 현상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 온 '시진핑의 중국'과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우호국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중국과의 사이에서 四面楚歌(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미관계 최고 전문가 이화여자대학교 박인휘 교수는 G2의 격돌이 '국제 정세의 판'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새로운 판에서 우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